

다함께 청렴한 소식지



• 청렴 뉴스 •

○ 10명 중 9명 시달렸다..."똑똑한 악성민원, 공무원 가장 피말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4561>

○ 야근 강요, 복장 단속... 상명하복 문화에 명드는 국립초 교사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626516187?OutUrl=naver>

○ 가장 불합리한 공직사회 관행은 '상급자 식사 챙기기'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06/14/20240614500047?wlog_tag3=naver

• 역사 인물 청렴명언 •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정치가

율곡 이이

율곡 선생이 벼슬에서 물러나 해주에서 100여 명의 대가족을 이루고 살면서 식량이 떨어질 때가 종종 있었다.

이에 선생은 대장간을 세워 생활을 유지해 나갔다고 한다. 하지만 식솔들을 거두어

들이기가 여간 힘이 든 것이 아니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선생은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다.

이런 사정을 딱하게 여긴 최림(당시 재령군수)이라는 친구가 쌀을 보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쌀을 돌려보내며 "나라의 법에 장죄(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부정하게 재물을 탐한 죄)가 심히 엄해 받는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우리나라의 수령이 나라의 곡물 아니고서는 다른 물건은 없다. 그러니 무릇 수령이 주는 것은 모두 받아서는 안 된다. 최림은 어릴 때 친구이니 만일 자기 집의 재물로 구제해 준다면 어찌 받지 않을 이치가 있겠느냐며" 말했다고 한다.

• 직장 내 갑질 근절 캠페인 •

<비인격적 대우>2편

사례1	<div><p>직장 내 갑질 근절 캠페인 시리즈 2편</p><h4>부당한 언행</h4><p>업무지시를 할 때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행위</p><p>이런 비타인C 수박C</p><p>업무 지시에 폭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p><p>한국산업단지공단</p></div>
사례2	<div><p>직장 내 갑질 근절 캠페인 시리즈 2편</p><h4>부적절한 호칭 사용</h4><p>부하직원을 "아", "너" 등의 반말로 부르는 행위</p><p>아! 너말이야...</p><p>부하직원을 부를 땐 올바른 호칭을 사용해주세요!</p><p>한국산업단지공단</p></div>
사례3	<div><p>직장 내 갑질 근절 캠페인 시리즈 2편</p><h4>과도한 질책</h4><p>다른 직원 앞에서 특정 직원의 잘못을 과도하게 질책하는 행위</p><p>과도한 질책을 삼가주세요!</p><p>고지르는 이게 문제야 참 인내... 당 인내... 백 인내...</p><p>한국산업단지공단</p></div>
사례4	<div><p>직장 내 갑질 근절 캠페인 시리즈 2편</p><h4>불합리한 지적 행위</h4><p>외모, 출신지역, 학력 등에 대해 지적하는 행위</p><p>불합리한 지적도 갑질입니다!</p><p>한국산업단지공단</p></div>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캠페인 시리즈>